

담양군, 슬로시티 활성화 대책 마련

정자문화·가사문학 등 바탕 담양 발전 전략 수립 기본 용역 추진

1차 거점 지역 창평면 중심 클러스터 조성·2차 거점지역 확대 등

창평 슬로시티 전경



담양군이 슬로시티 지역 확대 방안 마련 및 조례 개정 추진하는 등 담양 발전을 위한 슬로시티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담양의 정자문화와 가사문학, 인문학 교육 등을 바탕으로 한 슬로시티 '담양 발전 전략 수립 기본 용역'을 추진한다.

1차 거점 지역인 창평면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조성, 2차 거점 지역 확대, 지역의 핵심 콘텐츠 중심의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등 지역 미래유산과 전통문화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슬로시티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와 관련해서는 일부 조례 개정을 추진해 슬로시티 확대에 따른 명칭과 내용 등을 개정하고 사용자 중심의 시설물 관리와 지역별 슬로시티 거점마을을 육성지원 근거도 마련해 나간다. 이밖에도 공무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슬로시티 이념과 정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 양성교육으로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위원회 관계자 선진지 벤치마킹과 슬로시티 홈페이지 개편, 유희지를 활용한 목화, 봉송야, 맨드라미 500여 본을 식재해 포토존을 조성하는 등 창평슬로시티 거점화에도 속도를 낸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번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이탈리아 중북부에 있는 피렌체 지방이 시민의 힘과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중세 르네상스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듯이 우리 지역도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와 인문학을 기반으로 문화, 체험, 관광을 접목한 융복합화로 담양의 '신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형식 군수는 최근 프랑스의 슬로시티 미헨드에서 개최된 2018국제슬로시티 총회 참석과 함께 국제슬로시티본부에 있는 이탈리아 슬로시티 오르비에토, 가스펠 누보 등의 슬로시티 운영상황 등을 둘러봤다.

담양=박종영 기자



맛과 사람 사이를 건다...곡성맛담 시작

곡성군은 지난 13일부터 향토 음식과 솜씨 보유자를 발굴해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하기 위한 향토음식지원화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곡성맛담'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곡성맛담'은 음식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의 웃음과 표정, 식사하며 나누는 이야기, 그 장소의 햇살과 바람, 날씨, 음식에 담긴 추억 그리고 어머니의 손맛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17년에 참깨탕, 청국장 등 가을 음식을 선보였고 올해는 2년차로 다슬기, 하지감자 등 여름

음식을 주제로 한다. 13일에는 고달면 두계리에서 2018년 곡성맛담 첫 번째 이야기로 '섬진강 다슬기 정식' 편이 진행되었고 오는 18일에는 곡성을 동리에서 '콩수제비', 20일에는 고달면 목동리에서 '하지감자 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향토음식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 이야기들도 함께 채록하고 보존하는 것에 이 사업의 목적이며 우리 지역과 연계한 관광콘텐츠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곡성=김광희 기자

강진군청 옆 군수 관사 조만간 '군민 품으로'

이승욱 군수 공약 실천

강진군청 옆 강진군수 관사가 이승욱 강진군수의 공약대로 조만간 군민 품에 안길 것으로 보인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승욱 강진군수는 후보자시절 군수 관사를 폐지해 군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 군수는 관사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군은 지난 9일부터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은 군민 의견이 모두 모아지면 군수 관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최종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군민 의견으로는 관광편의를 위한 관광안내소나 관광객들의 숙박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승욱 군수는 취임 이후 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지택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강진군 관사는 2006년 민선 4기에 1,000㎡ 부지에 분관 1층으로 지어졌으며 연간 유지 비용으로 60여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김명일 기자

강진군, 친환경농업단지 벼 병해충 적기 방제 지도

연년 비해 일주일 빨리 일부 지역 먹노린재 발생 확인



강진군은 지난해 병해충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단지 벼 재배지역 병해충 발생 상황을 예찰한 결과, 예년에 비해 일주일정도 빨리 일부 지역에서 먹노린재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적기 방제를 위한 농가 지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진군은 벼 병해충 사전 예방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윤순철) 합동으로 지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관

내 친환경 벼 농업단지 16개소를 현장 방제 지도하고 읍면은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각 지회와 합동으로 지역별 병해충 예찰과 적기 방제 지도했다.

강진군은 친환경 벼 농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병해충 예찰과 현장지도를 강화해 농가 피해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제초제인 새끼우렁이 수거 실태도 함께 파악해 우렁이 월동을 사전차단하고 추후 우렁

이에 의한 피해예방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벼 잎을 빨아먹는 '벼 먹노린재'는 벼를 말라 죽게 하거나 쪽정이로 만들며 벼 풀질과 생선방에 큰 영향을 준다. 생육과 번식이 용이한 고온의 날씨가 지속되는 7~8월 경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는 자기 논이 벼 포기 사이를 잘 살펴 먹노린재가 50포기에 1마리 이상 발견되면 즉시 방제를 해야 한다.

작은 충격이나 소리에도 쫓기 속이나 불속으로 숨는 습성이 있어 방제하기 까다롭기때문에 눈물을 뺀 후 해질 무렵 적용 약제를 충분히 살포해야 한다. 먹노린재 순밀도를 줄이기 위해 산란 전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본 논으로 이동하는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까지는 방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앞으로도 공무원 위주의 예찰·방제 지도보다는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병해충 예찰과 현장지도를 강화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품목 다양화와 유기농 인증면적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명일 기자

영암군 금정면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 땀방울 기찬랜드 손님맞이 대청소 실시



영암군 금정면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고재남, 최관순) 회원 40여 명은 지난 12일 금정면 연소리 626번지 일원에 위치한 땀방울 기찬랜드에서 금정면사무소(면장 정제기) 직원들과 함께 2018 땀방울 기찬랜드 손님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청정 계곡 속에 자리 잡은 금정 땀방울 기찬랜드는 자연형 풀장

3개소와 샤워장, 리커름, 매점, 정자, 평상, 파라솔, 화장실,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조용한 곳에서 시원하게 물놀이와 휴식을 즐기려는 이들에

게 매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올해도 금정면 청년회에서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운영한다.

금정면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깨끗한 금정면을 만들기 위하여 마을과 하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매년 여름 휴가철에는 땀방울 기찬랜드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광산 010-5604-6533	송하 010-8620-1925
중앙 010-3365-6200	학운 010-4166-1810	임동 010-2656-4543	양산 010-2646-3205
광천 010-6612-8599	금호 010-6636-2775	오치 010-7532-3313	북구 010-4601-2080
상무 010-5359-7406	풍암 010-6634-5084	동운 018-611-7751	용봉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두암 010-2684-6091
진월 010-2615-8374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회손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